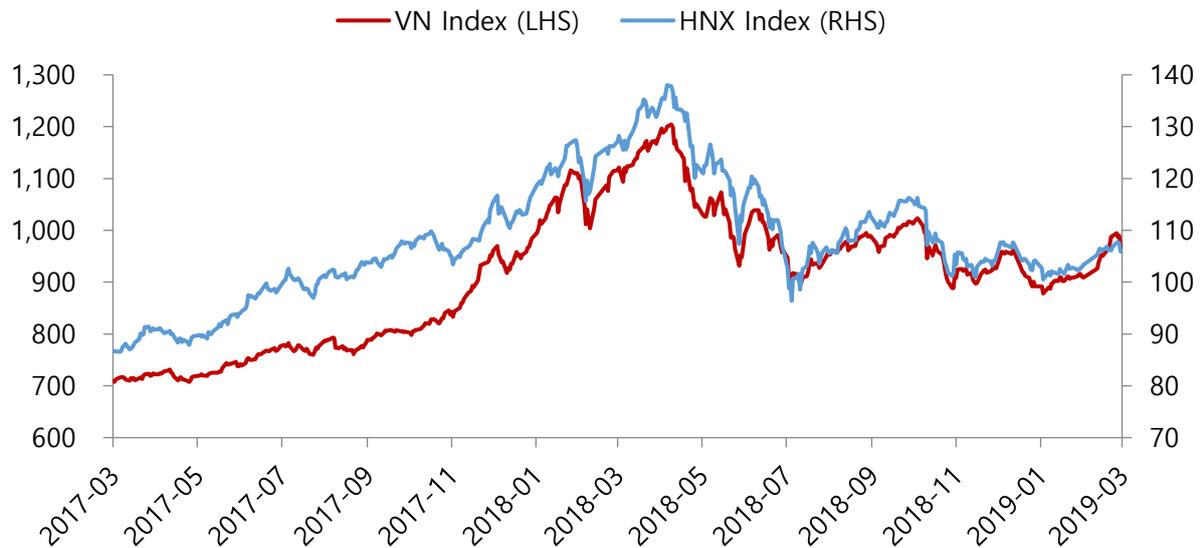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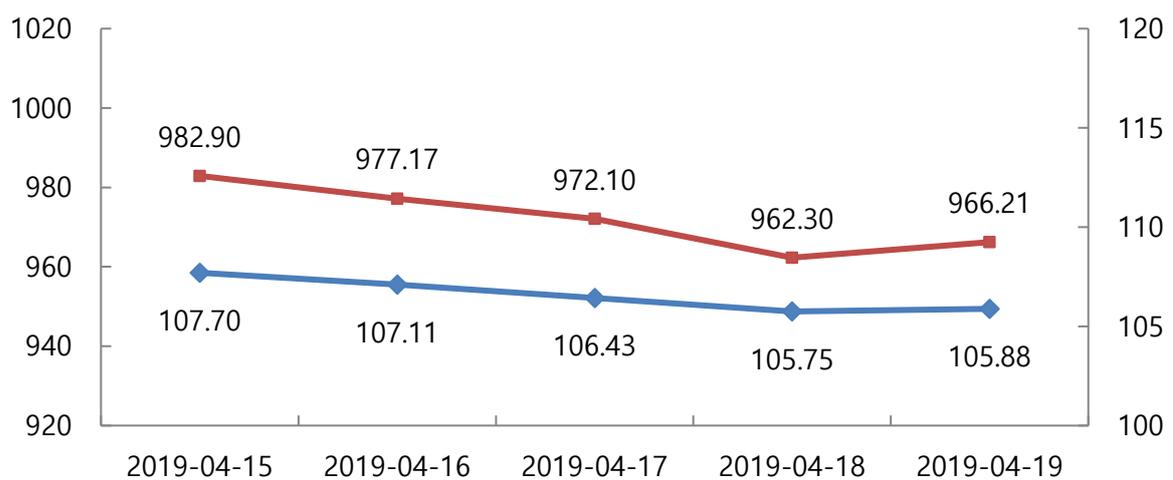


## 1. 주식시장 뉴스

### ■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 주중 주식시장 개관

베트남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요일 966.21 포인트로 마감한 VN 지수는 이번주 내내 약세를 보였다. 특히,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보아, 전문가들은 주식시장 내 투자자들의 조심성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종목으로는 우량주들이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HNX 지수도 하락세를 기록했다.

## ■ 개별 기업 뉴스

### ○ 베트남 항공, 호치민시 증권거래소 상장 예정

호치민 증권 거래소가 베트남 최대 항공사인 베트남 항공의 상장을 승인했다. 현재 베트남 항공의 주식은 비상장 기업 거래소(UPCoM)에서 14억 주가 거래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항공의 지분 86% 가까이를 소유하고 있으나, 2020년까지 지분 비율을 51%로 감소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항공은 작년 2017년에 비해 17% 오른 96조 8천억 동(41억 7천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 세전 이익은 3조 2400억 동(1억 4천만 달러)으로 목표치보다 34% 높았다.

### ○ Bamboo Airways, 3000만 달러 자본금 증자할 것

FLC가 주식 발행을 통해 Bamboo Airways의 정관자본금을 7000억 동(3010만 달러) 늘릴 계획이다. Bamboo Airways 정관자본금은 2조 동(8610만 달러)까지 오를 예정이다. FLC는 3조 동(1억 2920만 달러) 가까이를 조달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에게 거의 3억 주가량을 발행한다.

제안 발행 액면가는 1만 동(43 센트)이며 이는 시장 거래가인 5천 동(22 센트)의 두 배이다. FLC는 나머지 2조 3천 억 동(9900만 달러)은 부동산 사업과 병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주식 발행은 베트남 증권위원회(SSC)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 2. 주요 경제 동향

### ■ 베트남, 2025년부터 IFRS 의무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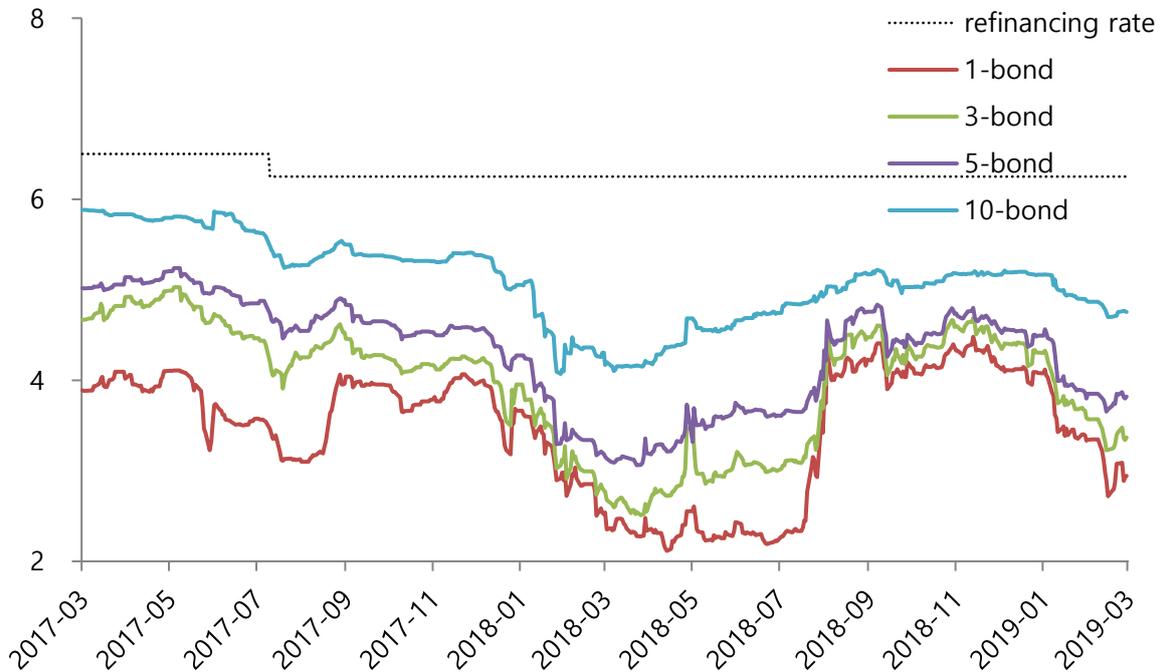
2025년 이후 국영기업, 상장기업, 비상장 대형 공기업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 의무화된다.

베트남 내 IFRS 채택을 위한 로드맵은 2022-2025년과 2025년 이후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IFRS 적용을 권장한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몇몇 기업 혹은 재무부가 시험 이행을 위해 선택한 기업들이 IFRS를 적용할 수 있다.

2025년 이후 IFRS는 국영기업, 상장기업, 비상장 공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의무화된다. 중소기업 회계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제외한다. 번역, 교육, 지도 등과 같이 필요한 준비들은 2021년 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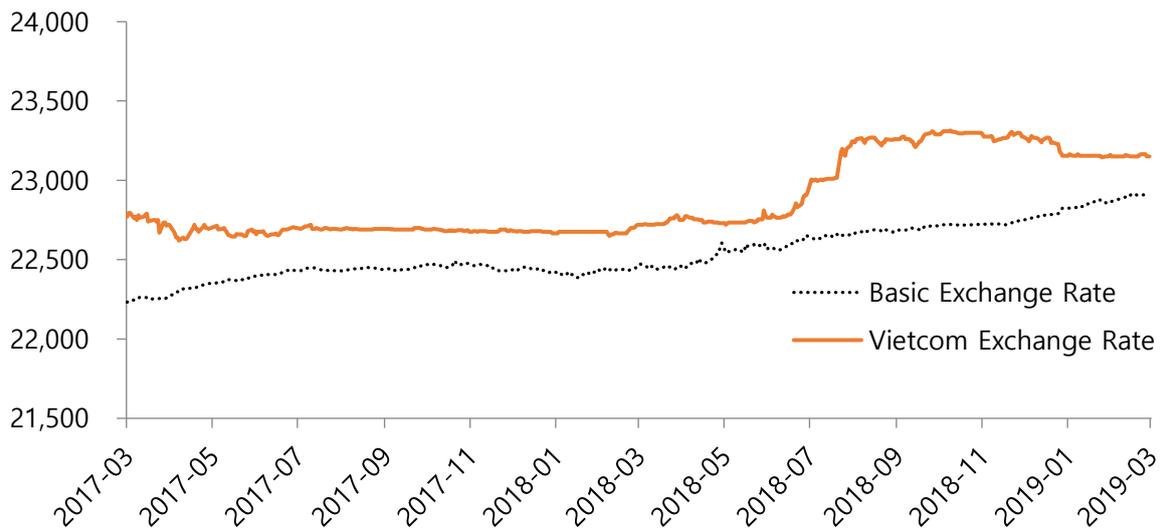
### 3. 금융 시장 동향

■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19-04-19	Buying	Transfer	Selling
VCB xchange Rate	23,145	23,155	23,255



■ **중앙은행, 부동산 대출 통제 강화 요구**

중앙은행이 신용기관의 부동산 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가 상승과 열 징후를 보이는 지역이 대상이다.

중앙은행 Le Minh Hung 총재는 지점과 은행들에 부동산 시장 개발을 주시하고 해당 영역에 대한 대출 규정을 엄격히 모니터링 할 것을 주문했다. Hung 총재는 비정상적인 시장 개발은 중앙은행에 반드시 보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4. 부동산 시장 동향

■ **Trung Luong-My Thuan 고속도로, 2020년까지 완공 예정**

Trung Luong-My Thuan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5 개월 간의 지연 끝에 이번 달에 재개돼 2020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Trung Luong-My Thuan JSC 의 Mai Manh Hong 법인장은 투자 부족과 행정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지연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금부터 6 월말까지, 건설업체들이 프로젝트 기초 작업과 도로 표면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Hong 법인장은 말했다. 올해 말까지 프로젝트의 50~60%가 끝날 것이며, 2020년에 완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5. 한국 기업 동향

■ **동아제약, 사전피임약 100 만불 베트남 수출**

동아제약이 사전피임약 ‘로만 케이’로 베트남 시장 공략에 나선다. 동아제약은 지난 18 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인구가족계획국과 사전피임약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19 일 밝혔다.

지난 2017 년 8 월 동아쏘시오그룹과 베트남 인구가족계획국 간 사전피임약 공급 양해각서 체결 후 이뤄진 첫 수출 계약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동아제약은 베트남에서 제품 허가 승인이 완료되면,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3 분기 중으로 인구가족계획국에 약 100 만 달러(11 억 3000 만원) 상당의 사전피임약 ‘멜리안’을 수출할 예정이다. 동아제약은 2018 년 2 월 베트남 보사부에 제품 허가 신청을 완료했고 이달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멜리안의 수출 제품명은 ‘로만 케이(Roman K Tablet)’이다. 베트남은 인구증가를 제한하는 정책 중 하나로 가임기 여성들에게 경구용 피임약을 이용한 피임을 유도하고 있다.

(More information: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2197&thread=22r05>)



■ 한화자산운용, 亞 거점 넓힌다...베트남사무소 설립

한화자산운용이 베트남 호치민에 주재사무소를 설치해 베트남 자본시장의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베트남 리테일 시장 개척에 나선다. 한화자산운용은 18 일 베트남 호치민에 주재사무소를 설치 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중국, 미주법인에 이은 네번째 해외거점이다.

이번 베트남주재사무소 설치로 싱가포르 법인이 위탁운용 중인 '한화베트남레전드펀드'의 운용 및 리서치 기능이 강화돼 안정적인 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베트남 자본시장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한화금융네트워크가 보유한 디지털 투자플랫폼을 활용해 베트남 리테일 시장을 개척한다는 복안이다. 한화자산운용은 이미 싱가포르법인과 본사 협업을 통해 지난해 8 월 베트남 시가총액 1 위 기업인 빈그룹에 4 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More information: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19/04/18/0027/naver>)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mailto:restpine@gmail.com) / [rest@jplaws.com](mailto:rest@jplaws.com) + 84-96-280-601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mailto: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